

주부신행담 부처님 아니게신 곳 없으니 ㉔

4 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불보살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의 가호하심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 집안의 막내녀로서 마음에도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지만 불보살님의 가피로 마음의 문이 열려 부처님께 귀의하게 해준 남편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다. 덕분에 한주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마다 참석하여 덕높으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교의 진리는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명심하여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심하고 있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게 어려운 일이 다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신경쓰고 고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국 내 몸을 망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신경쓰고 걱정하기보다는 불보살님께 의지하여 기도정진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불보살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정진하다 보니 모든 일이 스스로 잘되어감을 느끼고 있다.

앞마전 차이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턱에 이상이 있었는지 잇몸의 통증으로 입을 벌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관할하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는 나에게 남편이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쁘다면 최악의 경우 수술까지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저는 관세음보살님 믿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관세음보살님뿐입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하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쳤습니다. 한 호흡에 몇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념으로 부르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께서 하얀천을 내 턱 밑에 깔아주셨다. 그 하얀천에는 탐이 그려져 있었고 그 탐 속엔 빨간 글씨가 백백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나를 안심시키고는 천을 정성스럽게 깔아주셨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날 나는 또 거짓말같은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통증으로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내 입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병원에 가라던 남편은 내가 피병을 했다고 할 정도로 믿지를 않았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감사드리고 더욱 발심하여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불보살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 작은 보시함을 만들어 기도할 때마다 적은 돈이나마 꼬박꼬박 보시함에 담았다. 한달동안 모은 적은 돈이지만 매일 말일에 그 돈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후원금으로 회향하고 있다. 불보살

신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순간 섬겼다.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를 보는 듯 낯설었다. 그렇다고 마약같은 것을 복용한 것도 아닐텐데 눈에 초점없음이 이상했다.

나는 놀라서 추궁하던 말을 멈추고 내 방에 들어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의미하는 눈물인지도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장으로 자식을 통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참회의 기도를 열심히 일심으로 했다. 나는 100일을 정해서 아침에 예불문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관음정진 발원반 아심경 순으로 기도하러 다니며 신묘장구대다라



그림 · 이준석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일체유심조' 교훈을 생활화하고 있다

남편이 입을 은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드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내가 받은 가피를 또 한가지 더 적어보고자 한다. 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다. 그렇게 착하고 부모 말씀이라면 순종하던 아이였다. 그러던 그 아이가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끝내는 얼마인 내가 제일 열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춘기때의 반항이려니 하면서도 변해 가는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꾸중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글기야는 매도 들어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아들과 마주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호리명탕하게 정

니를 100번씩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시작한지 60일 정도 되는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말을 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이다. 나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다.

나는 내 입이 많이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부처님께 내가 지은 업으로 내 자식들이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하고 발원하고 열심히 기도정진하고 있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흥불교학교에 보내고 부처님께 다가가게 했다. 엄마의 소망을 마다하지 않고 불교학교에도 잘 다니던 아들이 순간 나쁜 길로 빠지

려함이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아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보다는 모든게 다 내가 지은 업을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열심히 참회의 기도를 했다. 짧은 날이었지만 나에게 참회의 기도를 하게끔 계우쳐준 아들은 지금은 학업에 열중하며 착하게 생활하고 있다. 모든게 불보살님의 가피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나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피를 체험했다. 그 체험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아مان심을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전생에 나의 숙제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서 극복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만 찾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나는 불법을 만나고부터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불보살님을 의지하여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로서 이겨내고자 한다.

마음 한 번 바꾸면 상라만상이 부처님의 참기로 가득한 것을 모르고 항상 너와 나를 분별하여 무명 속에서 생활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새기며 마음 한 번 바꾸니 고통의 피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인욕으로써 참고 견디며 내가 지어놓은 업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희년을 다할 것이다.

만종생의 아버지이신 불보살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다행복하기를 바라며 나도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끝>

김갑숙(서울 용인구 한강로3가)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케이블)

- 사용 용도**
사찰연등용· 옥외행사용
- 규격**
· 단면적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과리용)
- 원형상 작업상 내부상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용 배선
· 일일이 파백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화재,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대원기업
· 인터넷 : <http://www.bulje.co.kr>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이름표>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이름표>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